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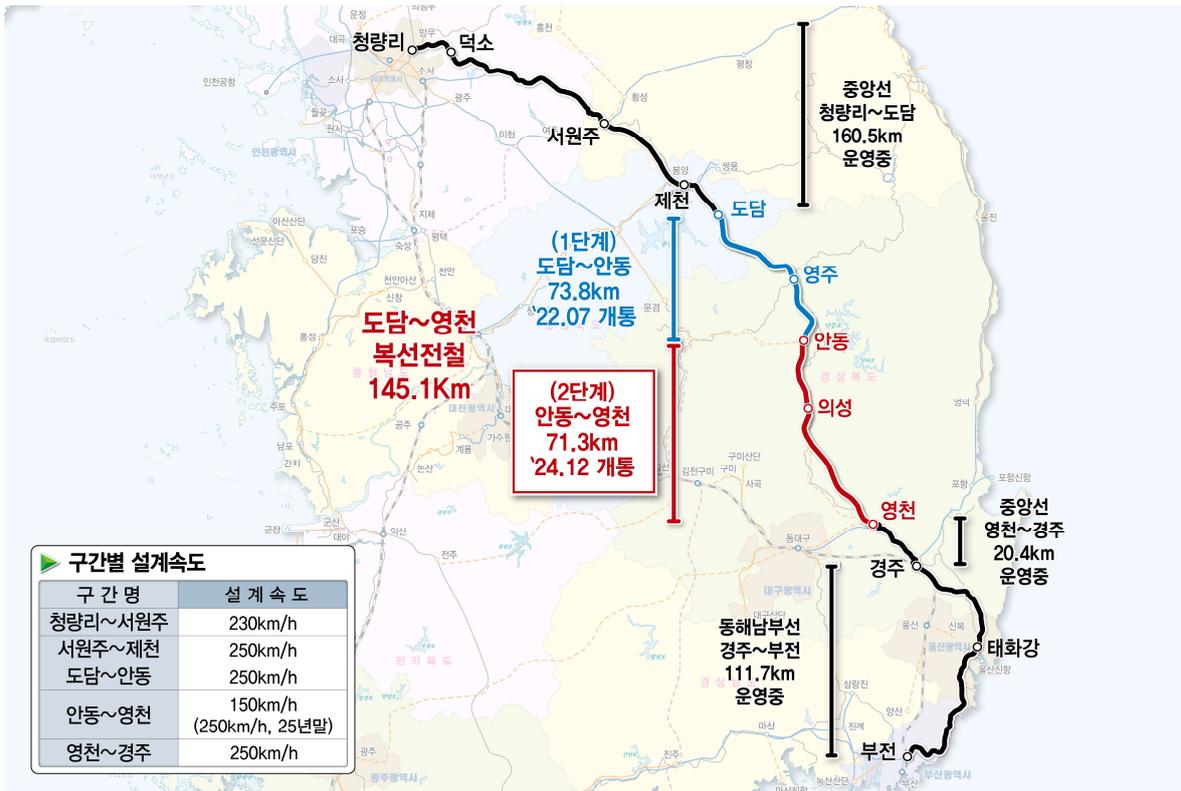
보도시점 : 2024. 12. 19.(목) 14:00 이후(12. 20.(금) 조간) / 배포 : 2024. 12. 19.(목)

서울~부산을 잇는 국토 종단의 대동맥, 중앙선이 완전한 복선 고속철도로 탄생한다

청량리에서 안동, 울산을 거쳐 부산까지 KTX-이음 투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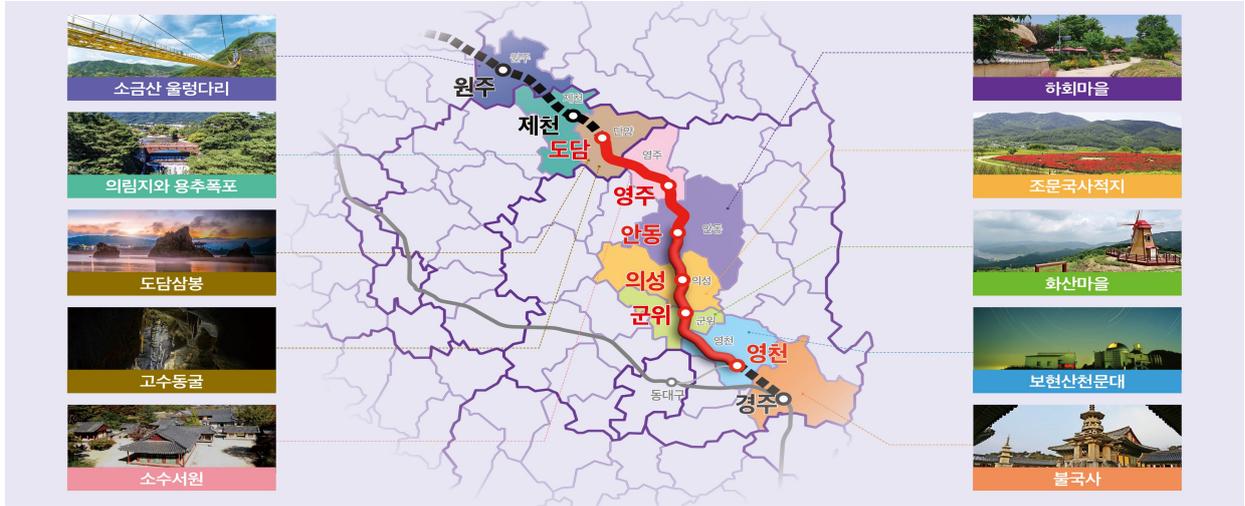
-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중앙선이 1942년 개통된 지 82년 만에, 단선 비전철에서 복선전철로 변모하여, KTX-이음 운영을 시작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12월 20일부터 정식 운영을 개시하는 ‘중앙선 철도 완전 개통 기념식’을 12월 19일 오후 3시 안동역에서 개최한다.
 - 기념식에는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을 비롯해 지자체, 국회의원, 철도공단, 철도공사 및 공사 관계자, 주민 등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.
- 정부는 그동안 중앙선의 속도 향상 및 수송 용량 확대를 위해 '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복선 전철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.
 - '10년 청량리~덕소, '11년 제천~도담 구간 등을 단계적으로 개통하고, '21년 원주~제천, 영천~경주에 이어 올해 중앙선의 마지막 구간인 ‘도담~영천’ 복선 전철화 사업을 완료했다.
 - 기존 ‘도담~영천’ 구간의 구불구불한 168.1km 단선철도는 145.1km의 복선전철로 선형이 개량되었고, 사업비는 총 4조 3,413억원을 투입했다.
 - 이로써, 중앙선 청량리부터 경주까지 연장 328km 중앙선 전 구간이 복선전철이 되면서, 동해남부선(경주~부전)과 연계하여 청량리부터 울산을 거쳐 부전까지 KTX-이음이 운행하게 된다.

< 중앙선 도담~영천 사업 및 운행 노선도 >



- 12월 20일부터 청량리~울산·부산 구간에는 KTX-이음이 하루 왕복 6회 운행할 예정이며, 기존에 운행하던 무궁화호를 대체하게 될 ITX-마음은 하루 왕복 4회 운행할 계획이다.
- 중앙선 개통 초기에는 청량리~부산 구간 운행 소요시간은 KTX-이음 기준으로 3시간 56분(청량리~태화강 3시간 12분), ITX-마음 기준으로 약 5시간 30분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.
- 내년 말 안동~영천 구간에 고속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신호시스템이 개량되면, 청량리~부산 구간 KTX 운행 시간은 3시간 40분대(청량리~태화강 3시간)로 단축되고 KTX-이음도 추가 투입하여 하루 왕복 18회로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.
- 중앙선 개통으로 수도권과 충북,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방도시가 더욱 촘촘하게 연결되면서, 기업 투자와 일자리가 확대되어 중부내륙 지역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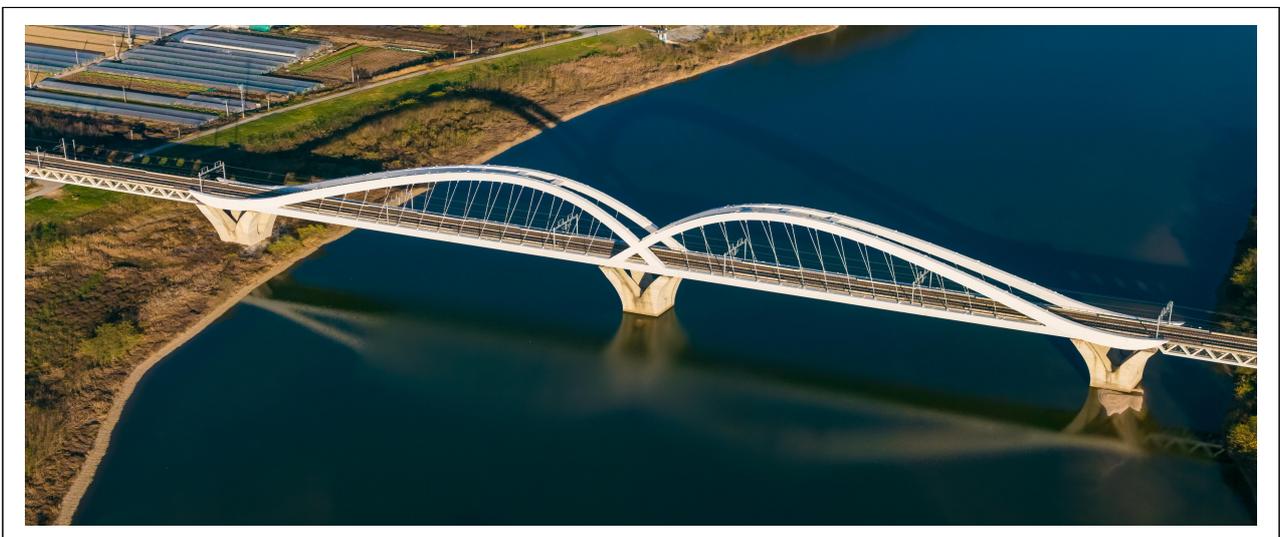
- 특히, 강원(원주), 충북(제천·단양), 경북(영주·안동·의성·영천 등)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을 찾는 관광수요가 늘어나고, 울산 도심과 기장·해운대·센텀 등 동부산 관광지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다.



□ 한편, 이번 도담~영천 구간에는 국내 최초로 철도교량건설 신공법이 적용되고 친환경 건설재료도 활용됐다.

- 안동역과 의성역을 잇는 안동고가에는 ‘하회탈의 눈매’를 형상화하여 독특하면서도 전통적인 구조미를 갖춘 ‘연속 크로스 리브 아치교*’를 국내 최초로 설치했다.

* 리브(Rib)는 둥근 천장에 있는 갈빗대 모양의 뼈대를 의미하며, 안동고가 ‘크로스 리브 아치교’는 2024년 제20회 토목건축기술대상 토목부분 대상을 수상



△ 안동고가(안동역~의성역 구간)

- 또한, 철근 생산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4% 감소되는 유리섬유 보강근*을 활용한 콘크리트 궤도를 국내 최초로 안동~영천 구간(터널 17개소)에 설치했다.

* (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) 유리섬유를 주재료로 사용하여 폴리머계 복합 재료로, 철근의 1/4 수준으로 가벼워 시공성이 우수하며 인장강도는 2배 수준



△ 유리섬유 보강근



△ 시공 전경

-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개통식에서 “이번 중앙선 복선 전철화와 KTX-이음 운행 개시는 대한민국 철도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성과” 라고 강조하면서, “경북·충청 등 내륙지역과 수도권을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하여, 누구나 살고 싶고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겠다.” 라고 밝힐 예정이다.

- 아울러, “중앙선이 지역과 지역을 넘어 국민의 일상과 희망을 잇는 가교가 되기를 바라며, 오늘 개통식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되길 기원” 한다고 덧붙일 예정이다.

담당부서 (개통사업, 개통식)	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건설과	책임자	과 장	오송천 (044-201-3950)
		담당자	사무관	김은철 (044-201-3952)
			사무관	이재훈 (044-201-4781)
			주무관	김남우 (044-201-3955)
담당부서 (열차운행계획)	철도국 철도운영과	책임자	과 장	강욱 (044-201-3970)
		담당자	사무관	심동휘 (044-201-4631)
			주무관	김은경 (044-201-3974)



